

# <삼위일체(三位一體)>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 『삼위일체 (Trinity)』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한 하나님 안에 동등한 세 가지 위격(position)을 말한다.

본질(Substance)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구분되는 위격(역할)을 말한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신적인 본질과 하나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세 위격이 나타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사역에서 서로 구별되면서, 모두 신적인 칭호와 영광과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께서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자와 성령님께서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터툴리안 -튀니지 카타르코 신학자 155-240년- "한 실체-세 인격(Una substantia-tres persona)이신 하나님"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용어에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

## 1. 구약성경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구절.

- <창1:1 태초에 하나님(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창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창1:26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유일하다. <우리>라는 단어에 의해 복수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창1:1 '엘로힘'(אֱלֹהִים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의해서이다.

'엘로힘'(אֱלֹהִים)은 '엘로아흐'(אֱלֹהִים 하나님)의 복수형이며, '하나님, 신들'을 의미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엘로힘'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 복수 어미는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진정한 복수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복수형은 완전을 나타내는 형태로,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엘로힘'은 복수가 아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히브리 원전에는 창1:26절의 '우리'라는 단어가 없다.(영어 'us' 표기하고 있다)

'אֱלֹהֵינוּ'(나아세. 아사의 복수 형태. "우리가 만들자")

- 유대 전통 : 하나님의 위엄의 복수.

- 기독교 신학 : 삼위 하나님의 암시로 이해.

‘하나님 위엄’이란 주체가 자신의 위엄·권위·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다. 실제로 여럿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라, 말하는 이의 권위, 통치권, 장엄함을 강조.

유대교는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창1:26을 삼위일체로 해석하지 않는다.

대표적 라삐의 해석들은 왕이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최고 주권자의 공식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만약 창1:26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다면, 창1:27. 28. 29. 31절도 ‘우리’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엘로힘)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

창1:26절을 원전에 따라 직역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형상에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가 될 것이다.

- <창11:7 우리가 내려가서~> / <11:5 여호와께서 ~ 보려고 내려오셨도다>

원전에 ‘우리’라는 단어가 없다. 5절에 이미 내려와서 보셨다.(그리고 심판하신 것이다)

- <창3:2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אֱלֹהִים 에하드)란 <신6:4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엘로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사48:16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His Spirit)을 보내셨느니라>

- <사63: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사야서 48:16. 63: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와 ‘그 영’은 삼위일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실 사역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 모세오경은 유대교 토라와 동일한 히브리어 본문에서 나왔으며,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타나크)을 기반으로, BC 3세기의 헬라어 번역(70인역)을 통해 교회로 전해졌다. (모세오경 동일) (토라 : BC 13-5세기 히브리어. 70인역 : BC 250년경 토라 → 헬라어 번역)

유대교는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창1:26을 삼위일체로 해석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학에서 본문 자체는 유대적 문법으로서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삼위일체의 암시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며, 인간 창조가 우주적·존재론적으로 종대한 사건임을 선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유대인에게는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창1:26절을 포함한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엘로힘) 한 분이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약성경은 오랜 세월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번역본으로 되어졌고, ‘삼위일체’란 용어는 240년경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도 ‘신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Bible. <성경의 유래와 변천사> 참조)

## 2. 신약성경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구절.

### 1) 그리스도의 세례.

<마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2) 그리스도의 가르침.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 3) 세례식.

<마28:19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3.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적 요약.

### 1) 성부는 하나님이다.

<요6:46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벧전1:2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 2) 성자는 하나님이다.

<사9:6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 3) 성령은 하나님이다.

<행5: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 4. 성자의 신성에 대한 증거

가) 성자의 신성에 대한 증거(요1:1,20:28, 롬9:5, 빌2:6, 딤후2:13, 요일5:20)

나) 성자에게 신적 명칭을 돌림(사9:6,40:3, 렘23:5,6, 딤후3:16, 율2:32, 비교 행 2:21)

다) 성자께서 신적인 사역을 행하심.

\* 창조(요 1:3,10. 골 1:16, 히 1:2,10)

\* 섭리(눅 10:22, 요 3:35, 17:2, 엡 1:22, 골 1:17, 히 1:3)

\* 사죄(마 9:2-7, 막 2:7-10, 골 3:13)

\* 부활과 심판(마 25:31-32, 요 5:19-29, 행 10:42, 17:31, 빌 3:21)

\* 만물의 마지막 붕괴와 갱신(히 1:10-12, 빌 3:21, 계 21:5)

#### 5. 성령의 신성에 대한 증거들.

- 하나님과 동일시 함.

\* (행5:3-4): 성령을 속인 것 = 하나님을 속인 것..

\* (고전3:16): 성도-하나님의 성전 = 성령이 안에 거하심.

\* (딤후3:16): 하나님의 감동-성령의 감동.

#### 6. 삼위 하나님의 관계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성자-성령의 순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 사이의 질서와 논리적 순서를 밝힌 것이지,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대해 지위와 능력이 종속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 1) 존재론적 순서

"성부는 다른 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처음부터 발생(generation)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처음부터 발현(procession)하셨다."

##### 2) 경륜적 순서

만물이 '성부로부터'(out of)나오고, '성자로 말미암고'(through), '성령안에'(in)있다.(요1:3,14)

##### 3) 구원 사역적 순서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고'(요17:6), '성자는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으며'(롬 5:8),

'성령은 구원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신다.'(고후3:18)

## 『삼위일체-2』

### I. 하나님의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인 창조주. 구원의 주. 능력의 주로서 각각 구별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한 수단의 명칭(칭호)으로서 세 가지의 역할에 의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칭한 호칭.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질(essence)로서, 한 몸에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뜻이다.

사역이 셋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이지만, 사역을 위해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본질’이 하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을 사용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분에 대한 세 가지 별칭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호칭이다.

세 가지의 호칭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 II. 무엇 때문에 삼위가 필요하셨는가?

아담으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새로이 완성하시기 위해. (새 나라에는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 III.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재 역할(Subsistence Function)은 무엇인가?

#### ① 성부 하나님 (Father of God).

구속 사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며 섭리를 정하시고 삼위일체를 구속의 계획 속에서 성자, 성령으로 나타내심.

#### ② 성자 하나님 (Jesus Christ)

※독생자(모노게네스. μονογενής) : 단 하나의 유일한 분 = 하나님 자신.

μονο(모노) : 단 하나(only one). 한 사람.

하나님 아들 :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호칭.

(애굽과 동방, 헬라, 로마.. 왕을 ‘신의 아들’로 부름)

- Jesus(Ἰησοῦς) : Name. 마1:21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 Christ(Χριστός. Messiah) : 명칭. 어떤 직책을 위해 사용하고자 특별히 임명하는 것,

- 성자 : 하나님 자기 계시의 한 방법으로 성육신으로 계시함.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심을 칭하는 이름.

### ③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 성령 :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에게(임재, 능력, 활동) 나타나심을 칭하는 이름.
- 중재자 :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중재.(엡1:7-10, 12)
- 창조와 구속사역을 완성시킴.

(엡1:1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성자 하나님'으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그들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다.

#### IV.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 1) 삼신론(tri-theism).

삼위일체란 별개의(서로 협조하는) 세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

(마4:1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참고 눅4:1)

(예수와 성령은 별개의 매개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 2) 단일신론(modalism).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신데, 다만 세 가지 다른 양태 혹은 역할로써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견해.

특정한 자에게 특정한 이름으로 한정이 된다.(남편, 아버지, 자식, 목적과 결과는 다르다)

그러나 삼위는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과 결과는 동일하다. (하나님 나라 완성과 구원)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으로 불린다. (하나님)

## <참 고>

‘본질’(essence) : 근본적인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하며, 존재의 변하지 않는 본래 모습.

‘위격’(Hypostasis)

- 그리스어 'ὑπόστασις'에서 유래한 용어로, 철학과 신학에서 근본적인 실체나 존재를 의미.
- (삼위)한 본질(본체)에서 구별되는 세 가지의 역할(position)을 의미.

‘인격’(personality) :

- 인간의 내면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
- 철학적 의미 :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품격.
- 심리학적 의미 :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태도, 행동 등을 포함한 개념.
- 신학적 의미 : 인격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자기 인식과 서로에 대한 관계적 구별을 가지고 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러나 세 인격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이 본질(Essence)적으로 하나이며, 단순히 세 분의 신이 아니라는 뜻으로 의미하고 있다.

(이 내용도 ‘인격’이 아닌 ‘위격’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위격 - 한 본질(Three Persons, One Essence)>이 삼위일체의 핵심 표현이다.

- 인격이란 ‘사람’의 성격, 품성, 개성 등에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personality)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으로, ‘위격’(Hypostasis. 한 실체 - 세 위격)이라는 용어가 신학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